

보험사기 걸러봤자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보험사기 고리 끊자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광주시 동구에 사는 A씨와 아들 B씨는 총 98회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입원기간 중에 백화점 쇼핑을 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했다. 일명 '페이퍼 환자'였다. 이들이 가짜 환자 행세로 가로챈 금액은 1억5000만원이나 된다.

좀 더 들여다보면 A씨는 지난해 4월30일 교통사고로 C한방병원에 입원했고 5월 15일 퇴원했다. A씨는 다음날 욕실에서 넘어져 D한방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29일 퇴원했다. 그는 다음날인 30일 또 사고를 당해 6월2일 E한방병원에 보름간 입원했고, 6월19일부터는 F한방병원에, 7월7일부터는 G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석달새 5차례 사고가 났고 각기 다른 한방병원 5곳에서 입원치료를 한 셈이다.

금감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로 지난

- 사무장 한방병원 가보니
- 우후죽순 사무장 한방병원
- 불법 뿌리 뽑으려면

**벌금형 선고 51%... 일반사기 2배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처벌 부실
'보험사기 특별법' 조속 제정을
검·경 전담조직 운영 목소리도**

해에만 보험금 누수액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10만원, 4인 가족 1가구당 4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험사기범이 가로챈 꼴이다.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불이익보다 챙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진단하고 있다.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 고소도 저위험,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숭방망이'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생기기 됐

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 2011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비율은 51%로, 일반 사기범의 2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징역형 선고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07년 24.7%, 2013년 22.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도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보험료라는 것이 원래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병원 관계자들은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면허취소 기준이 아니어서 병원을 옮기면 된다. 실제 지난해 광주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적발된 한의사 김모씨는 한방병원을 옮겨 전북에서 진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증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던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사기미수 사건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약하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운영해 소액의 보험사기범도 검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소액이라도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깔리게 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인 단위로 저지르던 보험사기가 지금은 가족·지인은 물론 보험설계사, 병원까지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사무장 한방병원은 거의 100%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보험사기는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 해질 18:16, 일출 21:35, 일몰 10:46

청명한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3/22	보성	맑음	11/22
목포	맑음	14/22	순천	맑음	13/23
여수	맑음	14/23	영광	맑음	13/22
나주	맑음	11/22	진도	맑음	13/23
완도	맑음	15/23	전주	맑음	11/22
구례	맑음	11/23	군산	맑음	12/21
강진	맑음	12/23	남원	맑음	10/21
해남	맑음	13/23	축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1/22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1.0~2.0
	면바다	북서~북	2.0~4.0	서~북서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3.0~4.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70
- 빨래 8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52	09:55
	17:29	22:26
여수	밀물	썰물
	11:55	05:23
	00:00	17:50

◇주간 날씨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6/24	12/24	12/24	13/24	13/24	12/24	13/24

現고1, 수학·국어 학습부담 커진다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변별력 떨어져...사교육 증가 우려

2018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수험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영어 부담 감소, 수학·과학·국어 부담 커져=일선 고교 진학부장 및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영어 절대평가까지 도입된 만큼 향후 수능에서의 영어 변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학·국어·과학 등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9등급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면 고득점자가 많아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입시전문학원인 종로학원하늘교육측은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2015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로 출제될 경우 상위 15.6%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능 응시자 60만명 중 9만명 정도다.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 당시 영어 난이도로 출제될 경우 23.3%에 해당하는 13만여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영어 준비에 들었던 시간·노력을 다른 과목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대신, 국

어·수학·과학 등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교육 증가도 이어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학별 고사 확대되나=일선 고교 진학부장 및 입시전문가들은 대학들의 경우 수능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와 논술 등으로 입학생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화하는 한편, 정시에서도 영어 반영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면접이나 논술 등에서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는 등 대학별 고사가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많은 대학이 현행 출제기준에서 9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시 및 정시전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전형요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학의 협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2018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선택과목

구분영역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 (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택1)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점	100분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 I, 영어 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	
탐구(택1)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물리 I, 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택 2
제2외국어/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교육부 제공〉

수험생들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비교과 및 활동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영어 학습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른 과목에 대한 비중이 커져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불만 소리가 터져 나온다. 물론, 중·하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절대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부터 철저히 영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장광재 숙덕고 진학부장 등 일선 고교 진학부장은 "제도가 바뀌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1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오는 12일부터 닷새간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탁, 북광주신탁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지급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탁 입곡지점 572-8167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 현장 상황 CCTV
- 안내방송
- 기계동작소리 청취
- 상태감시
-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반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